

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   대한민국의 	
		배포일자	2022년 11월 2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데이터혁신 담당관실	담 당 자	• 통계팀장 • 담당자	최종국 ☎440-2301 권윤한 ☎440-2303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다문화 · 외국인가구통계, 국가승인통계로 지정

- 인천 지역 특성 반영한 다문화 · 외국인가구 통계 개발 -
- 다문화 · 외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· 외국인가구통계가 「국가승인통계」로 지정됐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통계를 연차별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, 올해 3월 부터 서울, 경기 다음으로 다문화 ·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다문화 · 외국인가구통계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.

다문화 · 외국인가구통계는 다문화 · 외국인가구 및 가구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, 경제활동, 복지, 교육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것이다.

작성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· 외국인가구 및 가구원이며, 향후 2년 주기로 작성된다.

인천시 주관으로 경인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및 한국통계진흥원의 학술

용역을 통해 진행되며, 통계청의 인구·가구 통계등록부와 지역통계 행정 DB, 주택소유통계 DB 등 방대한 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, 교육부, 법무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집계, 연계, 결합해 작성된다.

작성 분야는 인구·주택, 인구동태, 경제활동, 자산, 복지, 교육 등 6개 분야 80여 개의 지표이며, 오는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 인천시 홈페이지(인천데이터포털) 및 국가통계포털(Kosis)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다.

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“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지역통계를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” 고 말했다.